

Lotte Hotel Membership Magazine

privilege

OCTOBER 2011



editor_ kim jieun
cooperation_ guido

He is *the* CLASSIC

Lino Ieluzzi may not be a household name. But he is still a legend in fashion who embodies the Italian style. The styling specialist has been knighted with the Italian presidential order of 'Commendatore'.



패션 블로그의 순기능이라 하면 뭐니 뭐니 해도 보는 즐거움의 스펙트럼이 넓어졌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연예인이나 셀러브리티 등 유명 인사는 말할 것도 없고 일반인의 다양한 패션 스타일을 구경할 수 있는 루트가 확대된 것이다. 그곳에서 처음 리노 이에루치를 보았다. 몸에 딱 조이는 더블브레스트 재킷에 더블 몽크 스트랩 슈즈를 신은 그, 특이한 사항은 어느 사진에서나 항상 버클 하나는 열려 있었다는 것이다. 후에 안 사실이지만, 스타일링의 변주를 좋아하는 그가 구두를 편하게 갈아 신고자 위 버클 하나를 열었고, 그것이 마음에 들어 그 뒤부터는 자신의 스타일로 굳힌 거란다(클래식 마니아 사이에서는 이를 하나의 트렌드로 인식해서 따라 하는 이도 많았다). 그런 그가 방한한다는 소식을 들은 건 약 두 달 전의 일이었다. 대중에게는 아직도 낯선 이름이지만, 유명 패션 블로거인 스콧 슈만의 '사토리얼리스트'를 필두로 많은 스트리트 패션 블로그와 잡지를 통해 얼굴을 알린 그이기에 패션업계 종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탈리아 북식 스타일의 대부로 불리는 그의 방한 소식은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리노 이에루치가 한국을 찾은 이유는 패션 기업 '신원'에서 새롭게 선보인 '반하트옴므'의 스타일 디렉터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였다. 이탈리아에서 알바자^{Al Bazar}라는 오더메이드 클래식 슱을 소유하고 있는 그가, 이탈리아 대통령이 수여하는 문화훈장인 '코멘다토레' 작위까지 받은 그가 유럽이나 미주도 아닌 한국 브랜드의 스타일 디렉터를 맡았다니. 한국에 있는 많은 클래식 마니아도 분명 함께 기뻐했으리라. 그럼, 다음 일문일답을 통해 리노 이에루치가 전하는 스타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브랜드와 함께 당신의 스타일이 체계적으로 상품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탈리아 브랜드도 아닌, 한국의 반하트옴므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반하트옴므는 이탈리아인 모던 클래식의 정체성을 추구하는 브랜드로서 내 스타일과 개성에 잘 맞는다고 생각해 결정했다. 물론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정두영과 개인적 친분이 있다는 점도 영향을 끼쳤다. 평소 그와 개인적으로 이탈리아 클래식에 대해 대화를 많이 했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비즈니스로 연결됐다.

개인적으로 반하트옴므 2011 F/W에서는 당신의 스타일이 많이 느껴지지 않았다. 당신의 생각이 어느 정도 반영됐는가?

잘 봤다. 스타일 디렉터로서 스타일링에만 일부 참여했고, 본격적인 참여는 2012 S/S부터 할 예정이다.

내년 1월 파리 컬렉션을 위해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것인가?

아직 확실히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정두영과 대화하면서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다. 그의 이전 컬렉션을 모두 보았는데, 그 안에서 많은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와의 작업은 즐거운 일이다.

당신은 이탈리아 남성뿐 아니라 전 세계 클래식 마니아의 멘토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런 당신의 멘토는 누구인지 궁금하다.

피아트의 CEO이자, <에스콰이어>가 서지한 역대 베스트 드레서 5인에 이름을 올린 지아니 아넬리(Gianni Agnelli)가 나의 멘토다. 그의 스타일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얘기해달라.

지아니 아넬리는 클래식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하는 데 아주 탁월하다. 셔츠 위에 시계를 차거나 타이를 변형해서 매는 것, 클래식 슈트에 워커를 신는 것은 그만의 '클래식 트윌스트'였다. 클래식한 스타일은 유지하면서 나만의 개성을 보여주는 스타일의 변형. 그것이 바로 지아니 아넬리다.

짧은 시간이지만 한국에 머물면서 많은 한국인을 만났을 것이다. 그들의 스타일을 보고 느낀 점은 무엇인가?

한국은 여러 가지 스타일이 공존하는 듯했다. 내가 만난 사람들 중 탁월한 스타일링을 보여준 사람도 더러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스타일에 대한 성숙한 시선이 필요한 듯

보였다. 이는 내가 반하트옴므와 함께하는 이유기도 하다. 반하트옴므를 통해 한국인들에게 새로운 감성의 클래식 스타일을 소개하고 싶다.

그들에게 조언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하나만 말해달라.

대부분의 사람이 스타일링을 하면서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고민한다. 특히 한국인들은 타인에 대한 의식이 강한 듯 보였다. 하지만 내가 입으면서 즐겁고 행복한 게 진정한 스타일이 아닌가? 그들에게 타인이 아닌 '나'에 집중하라고 말하고 싶다.

개인적으로 '더블브레스트'를 좋아한다. 당신은 명실공히 더블브레스트의 고수가 아닌가? 이를 입는 남성들에게 당신만의 노하우나 팁을 전해달라.

더블브레스트를 멋스럽게 입는 노하우는 단순하다. 내가 즐거워서, 내가 좋아서 입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멋진 스타일링이다.

주 고객층과 시스템 운영 방식 등 당신의 스텝 '알바자'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

알바자는 1974년 오픈했다. 내가 제시하는 클래식 스타일에 공감하는 정치인, 비즈니스맨, 연예인 등이 주로 찾아온다. 정기적으로 한국에서 알바자를 방문하는 고객도 있다. 대부분 MTM(Made to Measure)으로 진행되며 고객의 체형과 스타일을 분석해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얻고자 노력한다.

최근 대통령에게서 '코멘다토레'를 받았다고 들었다. 정확히 무엇인가?

코멘다토레는 이탈리아 대통령이 수여하는 문화훈장이다. 영국으로 치면 작위라고 할 수 있다. '문화'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이탈리아에서의 공헌도가 높다고 평가되는 사람들을 추천받아 심사한 후 선정한다. 매년 인원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어서 어느 해에는 수여자가 없는 경우도 있다. 그렇기에 개인적으로 더욱 영광스럽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생각하는 클래식을 한마디로 정의해달라.

스타일은 유행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에 있는 무엇이다. 남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스타일링 그 자체를 즐기자!



He is the *CLASSIC*